

“꽃꿀의 상큼함, 그대로 피부에 바르세요”

농촌진흥청, 임상시험 통해 보습력 향상과 주름 개선 효과 확인

꽃꿀(벌 익은 꿀) 추출물이 피부 보습력 향상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주 대학교와 임상시험을 통해 꽃꿀 추출물의 피부 보습력 향상과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연구진이 20대~50대 여성 54명에게 꽃꿀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 시제품을 4주간 사용하게 한 결과, 하루에 2번씩 바른 참가자들은 사용 전보다 보습 상태가 18%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3D 피부 촬영장치)로 주름을 측정했더니 눈가는 6.5% 이상은 10%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시제품의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참가자 모두(100%)가 보습·눈가 주름 개선·이마 주름 개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피부 자극 시험에서도 시제품과 원료 모두 피부 자극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연구를 통해 꽃꿀에 다양한 유용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꽃꿀 추출물은 다 익은 꿀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최대 2.3배 많았다.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최대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질 세포 대상 연구에서는 1% 꽃꿀 추출물을 처리했더니 주름과 탄성에 영향을 주는 히알루론산은 40% 각질 세포 간 단단한 결합으로 피부를 축축하게 하는 필라그린은 18% 증가함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육 감귤연구소장은 “꽃꿀의 유용 성분을 화장품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험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협,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 큰 인기

신협중앙회가 20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신협 등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과 친밀감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장래직업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는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으며, 신협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신협중앙회는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전국 신협 직원 공동채용 입사지원 시 1차 서류전형 통과와 혜택을 제공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모집기간에 전국 120개 대학 451명이 접수,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의 참여열기가 높았으며, 150명의 대학생이 최종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협과 사회적 금융에 대한 소개 ▲협동조합의 길을 선택한 신협인의 이야기 ▲신협 직원 공동채용 안내 ▲신협중앙회 채용안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협동조합과 신협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금번 대학생 체험행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든든한 등을 내어주는 사회적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신협의 가치가 알려지고, 97조원의 순수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세계 신협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신협이 청년층에게 더욱 친숙한 금융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협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평생 어부바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험후기 공모전을 실시해 행사 참여 소감과 신협 발전에 대한 제안을 듣고,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신협중앙회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통과 특전을 무상으로 수여한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 신협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톡톡 튀는 로컬푸드의 매력, 우리에게 맡겨요”

aT, 내달 5일까지 홍보 서포터즈 ‘로컬프렌즈 3기’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역먹거리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홍보대사인 ‘로컬프렌즈 3기’를 모집한다.

지난 2017년 첫 출범한 ‘로컬프렌즈’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트렌드에 맞춰 로컬푸드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로컬푸드 서포터즈다.

로컬프렌즈로 선발되면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재배지 팸투어 등 현장체험 ▲생산자와의 만남 ▲지역별 우수사례 취재 ▲선진국 사례 소개 등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콘텐츠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1~2기를 거치며 총 43명의 로컬프렌즈들이 270여 건의 로컬푸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다.

지난해 로컬프렌즈 2기로 활동했던 주부 김모씨는 “로컬프렌즈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우게 되었다. 좋은 먹거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컬프렌즈 3기’는 9월 5일까지 먹거리 생활에 관심 있는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팀 단위(2~5명)로 신청을 받는다.

로컬프렌즈로 선정되면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역별 로컬푸드 테마 등을 취재·홍보하게 된다.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수팀을 선정하여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aT 관계자는 “이번 로컬프렌즈 모집은 지역사회나 먹거리,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aT는 로컬프렌즈가 생산한 콘텐츠를 SNS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친숙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로컬푸드는 지역의 고령 영세농가 등 생산자의 판로개척을 도와주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으며, 농산물 구입자금이 지역에 환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면서 “이런 로컬푸드의 가치가 젊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프렌즈 3기’ 모집 및 신청접수 관련 세부사항은 바로정보 사이트(www.baroinfo.com)를 통해 확인 가능 하다. /김윤상 기자

군산농관원, 군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사무소장 이형수)는 20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과 학교급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안전성 합동 점검, 학교 관계자 교육, 시료채취 및 농약잔류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군산시 지역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안전성 등 관리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농관원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 해소 및 안전한 급식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시군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장 회의 개최... 긴밀한 소통·협조체제 구축 강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20일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중기청이 도내 14개 시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동향 및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북중기청은 201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설명을 시작으로,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제로페이 가

맹·이용 활성화 ▲스마트공장 시군별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 개최 ▲지역 중소기업 규제발굴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활동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애로신고 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고 14개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14개 시군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장들은 시군별 중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들과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을 전북중기청에 제안,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시군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추진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폭 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갖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합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쌍방향 소통의 의미 미한 회의였다”고 전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국내경제가 부진 국면을 맞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전북에서 이를 타개할 혁신의 불이 일도록 전북중기청과 14개 시군과의 협력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는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소상공인 위한 ‘헤드림 특례보증대출’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불경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이 지원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헤드림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헤드림 특례보증대출은 총 1조2천억원이 지원되며, 화이트리스트 폐쇄업체에 최대 2억원, 경영애로업체에 최대 7천만원, 저신용 영세업체에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7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

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69%~2.99%가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며 보증료도 0.5~0.8%로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재단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 우대조건에 따라 추가보증도 지원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에 일본수출규제조치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